

사회

# 유행처럼 번지는 '인터넷 범행 공모'

### 서구 부녀자 납치강도·남구 성폭행 사건 등 범죄 온상으로

## 평범한 가장·직장인 흉악범 전락

최근 인터넷을 통해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 가정의 가장, 평범한 직장인 등이 생활고를 이유로 순간적인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흉악범으로 전락하고 있다.

18일 남부경찰에 따르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김모(28)씨와 조모(29)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본보 6월 18일자 6면〉 김씨 등은 지난 13일 밤 11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A(여·36)씨의 집에 복면을 한 채 들어가 흉기로 A씨를 위협해 잇따라 성폭행하고 현금 1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사건 전날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무일 승차하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과 전화번호를 올렸고, 이 글을 보고 조씨가 일면식도 없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가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3일 광주서부경찰은 인터넷을 공범을 모집해 '어린이날 강도사건' '부녀자 납치사건' '금방

강도사건'을 저지른 주범 문모(37)씨를 강도살인미수, 특수강도, 납치강도, 강도예비 등 모두 다섯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현재까지 문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 5월 사이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등의 글을 남긴 뒤, 선량한 가장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차량 인양



담양경찰이 18일 오후 2시10분께 담양군 남면 학선리 광주호 하류지점에서 99년식 크레도스 승용차와 2011년식 스타렉스 승합차를 인양하고 있다. 두 차량은 각각 지난해 9월과 2010년 5월에 도난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실패와 생활고를 비판하던 조모(33)씨는 문씨의 유혹에 지난 5월4일 밤 납치강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수심차레나 휘둘렀다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허모(35)씨도 문씨의 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지난 3월15일 밤 40대 부녀자를 납치한 뒤 현금 620만원을 가로채 달아나 선량한 가장에서 강도전과자로 전락했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인터넷에 고민을 토로하고 상

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예전 교도소 동기 등과 함께 출소 후 범행을 공모하는 것과는 달리, 호기심에 글을 올렸다가 순간의 유혹에 범죄자로 전락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평소 친분도 없고, 전과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최근 일부 포털 사이트 블로그와 카페에서는 공개적으로 글을 올린 공범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택시 몰고다니며 농촌 빈집털이

### 감방 동기와 함께 동부경찰, 둘 검거

농번기를 틈타 택시를 몰고 다니며 농촌의 빈집만을 노려 금품을 털어온 기사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18일 영암읍 택시를 이용해 농촌지역을 돌며 빈집털이 행각을 벌인 택시기사 조모(45)씨와 강모(39)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중순께 진도군 진도읍 이모(여·68)씨의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75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구례와 곡성, 진도,

장성, 해남 등지에서 20여차례에 걸쳐 2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광주 모 운수 택시기사인 조씨는 교도소 동기인 강씨와 공모해 농번기를 맞은 농촌지역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농민들이 대낮에 자주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농가를 집중적으로 노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광주 시내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수차례 매도한 정황을 토대로 탐문을 벌인 결과 이들을 검거했으며 여죄와 공범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나원침 (8590) 김종두



##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 대법원, 제한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가톨릭대학교 부설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과기 취지는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 '웃로비 의혹' 임혜경 부산교육감 입건

'웃로비 의혹'을 받아온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입건됐다.

부산경찰청은 18일 임 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시 사립유치원 원장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해 4월16일 광주시 남구 사동 드림상실에서 유치원 원장 2명에게 원피스와 재킷 등 180만원 상당의 고급 의류 3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임 교육감 소환에 앞서 진행된 유치원 원장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기대하고 웃

물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가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부산 A유치원의 경우 2010년 초에 13학년(364명)에서 지난해 12월말 16학년(448명)으로 늘어난 것이 이번 웃로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임 교육감이 받은 의류 3점의 '직접적인 대가성'을 밝혀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부산일보 김승일 기자 dojune@

# 이웃 주민 4명 '묻지마 폭행'

## 무안경찰, 알코올 중독 치료 40대 검거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40대 마을 주민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휘둘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무안경찰은 18일 80대 노인 등 마을 주민을 이유없이 둔기로 폭행한 박모(40)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무안군 해제면 한 마을 앞 마을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이모(여·85)씨에게 다가와 들고 있던 둔기로 마구 때려 중상

을 입혔다.

이어 30여분 동안 마을 곳곳을 다니며 박모(76), 조모(여·74)씨 등 마을주민과 이웃 4명을 차례로 폭행했다.

이날 박씨에게 이유없이 폭행당한 주민들은 머리와 허리 등에 큰 상처를 입어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5년 전 이혼한 박씨는 2008년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수 차례 치료를 받아 왔으며 지난 5월에도 3주간 입원해 치료를 받던 6월 1일 퇴원한 것

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경찰에서 "박씨가 2주전 병원에서 퇴원한 뒤 마을로 돌아왔고, 약물 치료도 받지 않고 있었다"며 "어제 아버지 제사를 마치고 나간 후 벌어진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가 이날 아침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 오문철 보해저축銀 전 대표

### 100억 횡령 의혹 조사

서울중앙지법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60) 전 대표가 회사 자금 100억여원을 카지노 업체를 통해 빼돌린 단서를 확인, 수사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은 오 전 대표가 대구의 한 외국인전용 카지노 업체를 통해 자금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 지난해 해당 카지노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자금횡령 과정에서 카지노 업체 대주주가 가담한 것은 물론, 김대중 정부 시절 정관계 로비스트로 알려진 이용호(54)씨가 개인인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분실 스마트폰 유통 3000만원 부당이익

### 전남경찰, 20대 셋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택시에서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들인 후 서울의 장물업자에게 되팔아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박모(29)씨 등 2명과 이들로부터 대량으로 스마트폰을 매입한 오모(27)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박씨 등은 올 초 '중고휴대폰 싸게 매입'이라는 문구가 적힌 명함을 버스터미널 및 LPG가스 충전소 등지에서 목포지역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한 뒤 대당 80여 만원 상

당인 삼성 갤럭시 S2를 최고 20여만원에 매입하는 등 검거 직전까지 모두 250여대의 스마트폰을 사들였다.

박씨는 이 가운데 200여 대를 오씨에게 대당 10만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고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 등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매입한 오씨를 장물거래 현장에서 붙잡아 분실된 스마트폰의 최종 매입자와 오씨의 여죄에 대해 추가 수사중이다. 또 피의자 박씨 등에게 습득한 스마트폰을 팔아넘긴 목포지역 택시기사 100여 명도 불려 조사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비명소리에 성폭행 하려다 딱걸러

○~만취한 상태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려던 20대 조선족이 피해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자친구에게 붙잡혀 경찰서행.

○~1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류모(27)씨가 이날 새벽 0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 주택가에서 A(여·33)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 인근 공터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해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됐다던 것.

○~경찰은 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류씨는 "술에 취해서 따라갔을 뿐이다"라며 일부 범행을 부인.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웅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항상이나 성적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 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졌던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웅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원의 이환웅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웅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과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090204-중-4738호

# 전남 영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상위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외 1필지 (전남지방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 건물면적 : 7,305.36㎡ (지하 1층, 지상 3층)

| 구분 | 입찰기일         | 최저경매가격         | 결과 |
|----|--------------|----------------|----|
| 1차 | 2012. 04. 30 | 9,518,275,000원 | 유찰 |
| 2차 | 2012. 06. 11 | 6,662,793,000원 | 유찰 |
| 3차 | 2012. 07. 23 | 5,330,234,000원 |    |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